

광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항소심도 승소



광주광역시 시청 전경 사진

/광주광역시 시청 제공

광주고법 “초과 사용량 부담, 건축주도 책임”

상수도본부 2심 승소...유사 소송 잇단 승리

광주상수도사업본부가 '건축주에게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리로 항소심에서도 승소, 상수도 재정 안정화의 길을 뚫다.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광주고등법원이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개발사업 이후 계획 대비 수도물 사용량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건축주에게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수도물 사용량 증가라는 실질적 기준에 따라 원인을 판단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앞으로 유사한 원인자부담금 분쟁에서 지자체의 상수도 재정 안정에 기여할 유의미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수도시설을 신증설해야 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광주상수도

사업본부는 상업시설 용도로 예정된 구역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 후 수도물 사용량이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예상량 대비 약 22배 증가하자 건축주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건축주가 무효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시작됐다. 법원은 그동안 건물이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예정된 규모와 용도 범위 내에서 건축된 경우 실제 사용량이 계획량을 현저히 초과하더라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왔다. 이에 광주상수도사업본부는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수도물 사용량이 증가했다면, 당초 예정된 규모 범위 내에서 건축이 이루어졌을지라도 건축주 역시 실질적인 원인에 해당한다"는 대응 논리를 개발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상수도사업본부는 원인자부담금 부과 적법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이어 이

번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전담팀(TF) 운영하며 소송 대응 논리 확립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공적자연구모임 'FLUID' 활동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은 물론 상수도 재정 안정을 꾀하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같은 노력으로 지난 2024년 이후 제기된 소송 13건 중 8건에 대해 잇따라 승소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 5건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정액제에 따라 산정한 급수공사비가 실제 공사비와 약 4배 정도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아내 급수공사비 소송을 종료했다. 광주상수도사업본부가 건축주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적법성을 항소심에서도 인정받으며, 상수도 재정 안정과 유사 분쟁 대응의 기준을 마련했다.

/이유빈기자

현대차, '더 뉴 그랜저' 출시 첫날 계약 대수 1만 대 돌파

현대자동차의 '더 뉴 그랜저'가 출시 첫날 계약 대수 1만 대를 돌파하며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현대차는 더 뉴 그랜저 출시 첫날에만 총 10,277대의 계약을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2019년 11월 출시된 '6세대

그랜저(IG)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17,294대에 이어 역대 페이스리프트 모델 중 두 번째로 높은 기록으로, 대한민국 대표 세단에 대한 높은 고객 관심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다.

더 뉴 그랜저가 거둔 이 같은 성

적은 최근 자동차 시장 환경이 전기차 전환과 SUV 중심 수요증가가 뚜렷한 상황에서 내연기관 세단이자 페이스리프트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출시 단 하루 만에 1만 대가 넘는 계약 실적을 기록했다

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이러한 더 뉴 그랜저의 초기 흥행은 신차급 변화를 지향한 상품성 개선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차는 더 뉴 그랜저의 외장

및 내장 디자인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변화를 적용해 기존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움을 구현했다.

또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플레오스 커넥트'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경험 혁신 역시 고객 관심을 이끈 핵심 요인으로 평가된다.

이울러 차량을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고객의 일상과 연결된 스마트 디바이스로 확장한 점이 긍정

적인 반응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더 뉴 그랜저의 파워트레인 선택에서는 가솔린 모델 비중이 58%를 차지하며 기존 그랜저 대비 선택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체 계약의 40%를 기록했다.

다만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친환경차 고시 등재 일정에 따라 고객 인도 시점이 하반기로 예정돼 있어, 초기 계약 수요가 상대적으로

로 가솔린 중심으로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더 뉴 그랜저 트림별 계약을 살펴보면 최상위 트림인 '캘리그래피'가 전체 계약의 41%를 차지하며 강세를 보였다. 이는 기존 그랜저의 캘리그래피 트림 비중(29%) 대비 12%p 상승한 수치로, 한층 강화된 더 뉴 그랜저의 고급 사양과 차별화된 상품성에 대한 고객 선호도가 더욱 뚜렷해진 결과로 해석된다.

/이유빈기자

한제 해요!

토지권원 95.2% 달성! 조합원 모집 신고필!

조합사업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조합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양동현대지역주택조합